

현대중국어 양태 조동사 연용 양상에 대한 일고찰

문유미* , 오유정**

— 목 차 —

1. 서론
2. 개념적 정의와 논의 대상의 확정
 - 1) 양태의 이해
 - 2) 양태와 중국어 조동사의 분류
 - 3) 조동사의 연용 규칙에 대한 기존의 논의
3. 각 양태 조동사의 연용 분포
 - 1) '可能+X' , '想+X' , '敢+X' , '肯+X'
 - 2) '得+X' , '應該+X' , '會+X' , '可以+X'
 - 3) '要+X' , '能+X'
4. 현대중국어 양태 조동사의 연용 양상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양태의 관점에서 조동사를 분류하고 이들의 연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식양태, 의무양태, 동적양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양태 조동사 10개를 선별하고, 이들의 실질적 연용 양상을 CCL 코퍼스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태 조동사가 실제 연용되는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연용에 활용되는 조동사별 빈도 차이 및 전후 위치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주로 직관에 의지해 조동사 연용의 가능

*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제1 저자)

** 가톨릭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성에 대해 논의한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본고는 대량의 예문 분석을 통한 실증적 수치와 그 분포 양상을 바탕으로 조동사의 실제 연용 가능 여부를 명쾌히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향후 심화 연구 진행은 물론 교학적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조동사, 코퍼스, 인식양태, 의무양태, 동적양태, 연용, 조동사 연용

1. 서론

현대중국어 조동사(능원동사, 양태동사)는 명칭, 분류, 범위, 부정형의 비대칭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각도로 연구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그 다의적 특징 및 품사 경계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적지 않은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는 듯하다. 특히 양태(Modality, 情態)의 개념과 더불어 조동사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제약 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 왔으며, 그 중에서도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조동사가 연달아 사용되는 연용(連用) 현상¹⁾이다. 일찍이 趙元任(1978:323)이 조동사가 연용될 수 있음을 언급한 이후, 劉月華 등(1983:106)은 의미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조동사의 연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馬慶株(1988)는 조동사를 6개의 하위부류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의 연용 규칙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연용 규칙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아래의 예를 보자²⁾.

(1)a. 我認爲王國維[可能][應該]屬於鴛鴦這一類。

나는 왕국위가 아마도 분명 원앙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b. 就是通過這些標本的研究，通過一些特征的比較，我們認爲它[應該][可能]代表了這個輻鰭魚類跟肉鰭魚類祖先的一個特征。

이번 표본 연구 및 일부 특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마땅히 조기강과 육기강 선조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이를 이중정태(double modal), 'DM구조'라고 한다. 彭利貞(2007), 송영규(2007:2) 참조.

2) 이하 표기가 없는 예문의 출처는 CCL이다.

馬慶株(1988:20)에 따르면, ‘可能’ 뒤에는 ‘應該’가 올 수 있지만, 반대로 ‘應該’ 뒤에 ‘可能’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문 (1)에서 보듯, 실제 코퍼스에서는 ‘可能應該’, ‘應該可能’이 사용된 예문이 모두 발견된다.

또한 조동사가 드러내는 양태 의미의 유형에 따라 연용 가능 여부에도 차이가 드러난다. Guo(1994)는 동일한 양태 유형에 속하는 조동사는 연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아래의 예(2)와 같이 동일한 양태 유형에 속하는 두 조동사가 연용되는 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 (2)a. 沒有語言知識就什麼都聽不懂, 沒有其他方面的知識則[可能][會]聽錯。
언어지식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 b. 會議不能雜亂無章地開始, 總[得][要]事先準備好要討論的問題。
회의는 두서없이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논의할 문제에 대해 준비를 잘 해야 한다.

(2a)에서는 동일하게 인식양태에 속하는 ‘可能’과 ‘會’가 연용되고 있으며, (2b)에서는 모두 의무양태에 속하는 ‘得’와 ‘要’가 연용되고 있다.

이처럼 실제 언어 환경에서 조동사의 연용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고는 대량의 코퍼스 분석을 토대로 조동사 연용의 구체적인 분포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양태의 개념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과연 어떠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연용이 되고, 어떠한 경우 연용이 되지 않는지 그 실질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하는 데 논의의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 제시된 여러 연용 규칙이 얼마만큼이나 실제 언어 현상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면에 작용하는 운용 기제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태의 개념을 바탕으로 양태 의미별로 조동사를 하위분류하여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확정하고, 조동사 연용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실제

코퍼스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동사의 연용 분포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이러한 분포가 가진 의의를 살핀다. 이를 통해, 중국어 양태 조동사 연용의 실질적인 분포를 확인하는 한편, 그 이면의 작용 기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제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개념적 정의와 논의 대상의 확정

중국어 조동사는 양태를 나타내는 주요한 언어 형식이다. 즉, 화자의 주관적 혹은 객관적 인식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의 주요 형태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양태에 대한 정의나 분류, 또 이에 따른 조동사의 하위 유형 분류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동사의 연용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양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조동사의 하위분류를 통해 연구의 대상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양태의 이해

주지하다시피,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관점/태도를 가리킨다. Lyons(1977[2013]:122)의 정의에 따르면 양태란 “화자들이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혹은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³⁾ 또 Quirk et al.(1985:219)은 “일반적으로 양태란 일종의 방식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방식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사실일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반영한다.”고 하였다.⁴⁾ Palmer(1986:16)는 “양태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태도와 관점의 어법화로 정의할 수 있다.”며 양태를 동적양태

3) 강범모(2013:122) 참조.

4) 강선주(2009:187) 재인용.

(dynamic modality), 의무양태(deontic modality),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로 분류한 후, 다시 각각의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 정도에 따라 동적양태는 ‘능력이나 의지’, 의무양태는 ‘강의무·약의무·허가’, 인식양태는 ‘필연·개연·가능’ 등으로 하위분류하였다(Palmer(1986:16, 2001)).⁵⁾ 한편, Bybee 등(1994[2010]:253-254)은 전통적으로 양태는 ‘의무(obligation),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을 나타내는 문법형태가 있으며, 양태의 유형은 ‘동작주 지향적(agent-oriented), 화자 지향적(speaker-oriented), 인식적(epistemic), 종속적(subordinating)’으로 나눌 수 있다 하였다.

한편, 彭利眞(2005)은 양태의 관점에서 중국어 조동사에 대한 비교적 상세하고 체계적인 고찰을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주요 양태 유형인 인식양태, 의무양태, 동적양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인식양태는 명제가 참일 가능성이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견해·태도를 가리킨다. 즉, 어떠한 상황(情境)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인식양태는 또한 발화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상황의 사실성(事實性, factuality)에 대한 화자의 신념적 확신을 나타낸다. 인식양태는 명제의 진위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可能性, possibility), 필연(必然性, necessity)이 중요한 개념이다. 반면, 의무양태는 사건이 진짜가 될 가능성 및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관점/태도를 나타내며, 허락 및 필요 등의 개념과도 관련된다. 의무양태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행위자가 어떠한 행동을 실현할 필요성/가능성을 나타내며 미래 시간과도 내재적인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화자는 청자에게 회의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지령(指令, directive)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청자가 그 시간에 회의에 참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언하는 진술(陳述, statement)을 할 뿐이다. 이러한 의무양태는 권위 있는 사람/기관, 도덕/법률/규칙, 내재적인 동기 등의 기원(source)이나 원인(cause)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허락(許可, permissive), 의무(義務, obligative)의 개념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동적양태는 능력, 바람과 관련된 개념이다. 다만 능력을 나타내는 동

5) 彭利眞(2007:37-54), 최재영(2008), 송경안·이기갑 외(2008:166-190) 등 참조.

적양태는 허락 또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무 또는 인식양태로도 자주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能’은 어떠한 환경에서 행위자가 사건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때 환경에 대한 이해 차이에 따라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조건이 갖추어져 행위자가 어떤 능력을 실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바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가정이나 미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양태의 관점에서 조동사를 연구한 송영규(2007), 최재영(2008), 박재승(2014), 박성하(2017), 김지영(2019) 등은 모두 양태를 ‘인식양태, 의무양태, 동적양태’로 구분한 삼분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양태와 중국어 조동사의 분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태를 ‘인식양태, 의무양태, 동적양태’으로 구분하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이를 중국어의 조동사에 적용하였을 때 중국어의 조동사를 각각 어떠한 양태 의미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는 듯하다. 특히 전형적인 조동사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박영록(2005:93)은 조동사에 대한 선행연구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中學教學語法系統提要』, 劉堅(1960), 朱德熙(1982), 李臨定(1986), 陳光磊(1980), 趙元任(1968), 傅雨賢 외(1991), 馬慶株(1988), 孫德金(1996) 등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는 조동사는 ‘可以, 能, 能夠, 願意, 要, 應當, 應該, 敢, 肯, 該’ 등 10개라고 하였다. 송영규(2007:6)는 전형적인 양태 조동사를 ‘能, 可以, 會, 要, 應該, 敢, 肯’ 등의 7개로 규정하였으며, 최재영(2008:281)은 조동사의 범위와 유형이 6개에서 58개까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어 조동사의 수량을 陳光磊(1980)는 55개, 朱德熙(1982)는 27개, 李臨定(1986)은 44개, 馬慶株(1988)는 55개, 王振來(2002)는 58개로 보았으며, 여기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이 제시한 전체 96개 중 공통으로 포함된 조동사는 ‘能, 能夠, 可以, 會, 可能, 敢,

肯, 情願, 樂意, 要, 應, 應該, 應當, 該, 值得, 配' 등이었다⁶⁾. 彭利貞(2005:61)은 양태동사를 전형적인 양태동사, 비교적 전형적인 양태동사 및 비전형적 양태동사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전형적인 양태동사로는 '能(能夠), 要, 會, 應該(應當), 可以(可), 肯, 敢'이 있고, 비교적 전형적인 양태동사로는 '得(děi), 該, 可能, 想, 一定, 准'이, 비전형적 양태동사로는 '必須, 肯定, 得(dé), 樂意, 情願, 許, 願意'가 있다고 하였다.

彭利貞(2005)과 최재영(2008:294)이 분류한 양태에 따른 조동사의 유형과 의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양태에 따른 조동사 세분류 및 의미

양태	彭利貞(2005)		최재영(2008)	
	의미	유형	의미	유형
認識情態 epistemic modality	必然	必然, 肯定, 一定, 准, 得, 要	필연	得, 要
	蓋然	會, 應該, 應當, 應, 該, 當	개연	會, 應該, 應當, 應, 該
	可能	可能, 能, 能夠	가능	能, 能夠
道義情態 deontic modality	必要	必須, 得, 肯定, 准, 一定	필요	得
	義務	應該, 要, 會	당연	要, 應該, 應當, 應, 該
	許可	能, 可以, 准, 許, 可, 以	허가	能, 可以, 可
動力情態 dynamic modality	能力	可以, 會, 能	능력	可以, 可, 會, 能
	意願	要, 肯, 想, 願意	의지	要, 肯, 敢, 想
	勇氣	敢		

최재영(2008)은 양태의 세부 의미와 이에 따른 조동사의 하위분류를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식양태 조동사 '得, 要'는 [필연](반드시 그러함), '會, 應該, 應當, 應, 該'는 [개연](마땅히 그러함), '能, 能夠'는 [가

6) 이것이 현대 중국어 조동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라면, 이를 통시적 연구로 확대할 경우 조동사에 대한 고대 및 근대 중국어 학계의 인식에는 더욱 큰 차이가 나타난다. 즉, 조동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太田辰夫(1958)는 32개, 何樂士(1985)는 22개, 史存直(1986)는 20개, 楊柏峻·何樂士(1992)는 27개, 孫錫信(1992)은 19개, 劉利(2000)는 21개, 段業輝(2002)는 17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복된 것을 제외한 총 59개 중 일치하는 경우는 '能, 得' 두 개뿐이었다(최재영 2008:281-282 참조).

능](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의무양태 ‘得’는 [필요](마땅히 그래야 함), ‘要, 應該, 應當, 應, 該’은 [당연](그래야 함), ‘能, 可以, 可’는 [허가](~해도 좋음)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동적양태 ‘可以, 可, 會, 能’은 [능력](~할 수 있음), ‘要, 肯, 敢, 想’[의지](~하려고 함)를 나타낸다.

상술한 조동사의 하위분류, 양태 개념 등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상용 조동사 ‘想’, ‘要’, ‘得’, ‘會’, ‘能’, ‘應該’, ‘可能’, ‘可以’, ‘肯’, ‘敢’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조동사를 양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류하였다.

[표 2] 양태에 따른 조동사 세분류 및 의미

양태	의미	유형
인식양태	필연	要, 得
	개연	會, 應該
	가능	能, 可能
의무양태	필요	得
	의무	要, 應該
	허락	能, 可以
동적양태	능력	能, 會, 可以
	바람	要, 想, 肯
	용기	敢

3) 조동사의 연용 규칙에 대한 기존의 논의

사실 중국어 조동사의 연용에 대한 연구는 이미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馬慶株(1988)는 조동사(능원 동사)를 6개 유형으로 하위분류하고⁷⁾, 의미장

7) 그는 조동사를 ‘可能A’, ‘必要’, ‘可能B’, ‘願望’, ‘估價’, ‘許可’ 등 6개 유형으로 하위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조동사는 다음과 같다.

①可能A: 可能

②必要: 得děi, 應, 該, 應當, 須得, 必得, 要1, 犯得著, 犯不著

③可能B: 會, 可, 可以, 能, 能夠, 好, 免不了, 得以, 容易, 來得及

이론과 분포 특징을 결합하여 조동사를 분류한 후 이들 조동사의 연용을 연속연용과 간격연용(間隔連用)으로 구분하고 조동사의 연용에 미치는 영향과 제약 조건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조동사의 연용은 ‘可能A>必要>可能B>願望>估價>許可’의 배열순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앞서 예문 (1)에서 살펴 보았듯 그의 분석은 실제 언어 현상과 일정한 괴리를 보이며, 그가 제시한 연용 중 간격연용이 실제 연용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송영규 2007:3-4). Guo(1994)는 연용되는 조동사의 배열은 ‘인식양태>의무양태>동적양태’ 순으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양태 유형에 속한 조동사는 연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미 앞서 예문 (2)에서 동일한 양태 유형에 속한 두 조동사가 연용되는 예시를 확인하였다. 彭利貞(2005)은 조동사의 연용을 동일한 양태 유형에 속한 조동사 사이의 연용, 즉 同類 연용과 서로 다른 양태 유형에 속한 조동사 사이의 연용, 즉 異類 연용으로 구분하고 각 연용에 적용되는 규칙을 정리하였다. 먼저 異類 연용에 대해서는 앞선 Guo(1994)와 마찬가지로 소위 ‘EDD(인식양태(E)>의무양태(D)>동적양태(D))’의 규칙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는 同類 연용에 대해서도 배열 규칙을 제시했다. 즉, 동일한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은 양태의 강도에 따라 배열되며, 이중 양태의 정도가 강한 것이 앞에 위치한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양태 의미에 주관적/객관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주관>객관’의 순서가 정도의 차이보다 우선시된다. 彭利貞(2007)에서는 이러한 同類 연용의 규칙을 보다 구체화하였는데 다음과 같다⁸⁾.

1. 동적양태>동적양태
: [능력]이 다른 의미를 앞선다.
2. 의무양태>의무양태

④願望: 樂意, 願, 願意, 情願, 想, 想要, 要2, 要想, 希望, 企圖, 好意思, 樂得, 高興, 樂於, 肯, 敢, 敢於, 勇於, 甘於, 苦於, 懶得, 忍心

⑤估價: 值得, 配, 便於, 有助於, 難於, 易於, 善於, 適於, 宜於

⑥許可: 准, 許, 准許, 許可, 容許, 允許

8) 송영규(2007:7) 참조.

: 양태의미의 강도가 강한 것이 앞선다.

화자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 환경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보다 앞선다.

3. 인식양태>인식양태

: 주관적 양태가 객관적 양태를 앞선다.

그리고 異類이든 同類이든 조동사의 연용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총규칙은 ‘주관성이 강한 것이 앞선다’는 것이다.

한편, 同類연용의 규칙과 관련하여 吳藝莉(2018)는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一定’, ‘可能’, ‘應該’, ‘會’, ‘得’, ‘要’ 등 6개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용 여부는 화자가 어떠한 시각(維向)⁹⁾으로 관점 및 태도를 표현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는 인식양태 조동사의 체계를 ‘시각’ 및 양태의 ‘정도(梯度)’, 즉, 확신도(確信度)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양태에 따른 조동사 세분류 및 의미 (吳藝莉 2018:44)

시각 정도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냄	명제의 정도적 결과를 부각	경험에 근거하여 명제를 판단	변화의 상황에 근거해 명제를 판단
확신도 강	一定	得	會	要
확신도 중	應該			
확신도 약	可能			

그는 상기 표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나타내는 조동사만이 서로 연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각을 나타내되 그 확신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一定’, ‘應該’, ‘可能’은 연용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서로 다른 시각을 나타내는 조동사 사이의 연용은 ‘一定/可能/應該>得/會>要’의 순서로 배열되며 그 역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9) 시각(維向)의 개념은 徐晶凝(2005)을 따른 것으로, 그는 ‘維向’이란 ‘화자가 명제의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의무적으로 요구할 때 취하는 관점(說話人對命題可能性進行推測或發出道義訴求時所採取的不同角度)’이라 했다. 이를 바탕으로 吳藝莉(2018:40)는 “‘維向’은 양태어가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시각이다(‘維向’是情態詞表達情態意義的視角(perspective))”라고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학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인식/의무/동적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실제로 어떠한 분포로 연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 각 양태 조동사의 연용 분포

본고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태를 인식양태, 의무양태, 동적양태로 구분하고, 중국어 조동사를 상기 [표2]와 같이 세분하였다. 이들 조동사는 각기 하나의 양태 의미만을 나타내는 경우(인식양태 ‘可能’, 동적양태 ‘肯’, ‘敢’, ‘想’)가 있는가 하면, 여러 양태 유형의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要’, ‘得’, ‘會’, ‘能’, ‘應該’, ‘可以’).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연용 양상을 보일까? 본 장에서는 CCL 코퍼스 자료를 통해 ‘想’, ‘要’, ‘得’, ‘會’, ‘能’, ‘應該’, ‘可能’, ‘可以’, ‘肯’, ‘敢’이 연용되는 분포 양상을 분석하도록 한다.¹⁰⁾

1) ‘可能+X’, ‘想+X’, ‘敢+X’, ‘肯+X’

본 절에서는 하나의 양태 의미만을 나타내는 인식양태 조동사 ‘可能_[가능]’, 동적양태 조동사 ‘肯_[바람]’, ‘敢_[용기]’, ‘想_[바람]’이 연용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인식양태 조동사 ‘可能_[가능]’은 명제가 참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¹¹⁾. 단일 의미로 추측을 나타내는 ‘可能_[가능]’의 연용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0) 본고는 조동사 부정형식의 비대칭성은 논외로 하므로, 부정형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11) 아래 예문과 같이 본원적 가능성과의 차이가 유지되어야 한다. (박선자·김문기 (2010:257) 참조)

예) I may have put them down on the table ; they're not in the door.(Coates 1983:133)

‘可能+得’는 CCL에서 20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你**可能**_[가능]**得**_[필요]提醒一下沈喬治, 不能什麼活都掃。
너는 아마도 심교치에게 무슨 일이든 찾아다니면 안 된다고 깨우쳐 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4) 它在開展工作過程當中, **可能**_[가능]**得**_[필연]有一定的保障, 那麼這可能是政策的保障, 還有法律的保障, 我們就感受到可能在這方面我...
그것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일정한 보장이 필연적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아마도 정책적 보장과 법률적 보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 아마도...

예문(3)은 인식양태 ‘可能’과 의무양태 ‘得’가 결합한 異類연용이다. 異類연용에 적용되는 EDD 원칙에 따라, 인식양태 조동사 ‘可能_[가능]’ 뒤에는 의무양태 또는 동적양태가 올 수 있다. 따라서 異類연용에서 ‘可能’ 뒤에 오는 ‘得’는 의무양태인 [필요]를 나타낸다고 유추할 수 있다. 예문(4)는 同類연용으로 ‘可能’과 ‘得’는 모두 인식양태 조동사이다. 다만, 각각 [가능]과 [필연]이라는 명제에 대한 다른 시각(維向)을 나타내므로 同類연용할 수 있다.¹²⁾ 반면, CCL 코퍼스에서 ‘得+可能’의 조합은 단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다.

‘可能+會’는 CCL에서 총 498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 我們**可能**_[가능]**會**_[가능]說, 既然中國的制度問題以前就存在, 而由赤字帶動增長的模式在以前20幾年成功了, 那麼爲什麼今後不能再繼續呢?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제도적 문제가 이미 존재했고, 적자가 성장을 촉진하는 모델이 20여년간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면, 향후 이러한 모델이 계속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 (6) 沒有語言知識就什麼都聽不懂, 沒有其他方面的知識則**可能**_[가능]**會**_[가능]聽錯。
언어지식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12) ‘得’는 ‘명제의 정도적 결과를 부각’하고, ‘可能’은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 ‘시각’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용이 가능하다. 吳蕓莉(2018:44) 참조.

예문(5)는 EDD 원칙에 따라 ‘可能_[가능]’ 뒤에는 동적양태 ‘會_[능태]’가 올 수 있다. 반면, 예문(6)은 同類연용으로 앞서 설명한 ‘可能+得’와 같이 ‘會_[개연]’와 ‘可能_[가능]’이 나타내는 명제에 대한 시각(維向)이 달라 연용이 가능하다. ‘可能+要’는 CCL에서 총 421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7)a. 我這回有一點要修正，當時我說的是五十年內、一百年內，現在可能_[가능]要_[의무]講一千年內。
 이번에 약간의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시 50년, 100년 안이던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마도 1,000년 안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 b. 她說，她全家可能_[가능]要_[의무]移居加拿大。
 그녀는 가족 전부가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 있다고 하였다.
- (8) 用有爭議的幹部可能_[가능]要_[필연]冒一點風險，但只要看准了，就一定要大膽地用。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간부를 등용하는 것은 분명 약간의 모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찾았다면 대담하게 등용해야 한다.

예문(7a-b)는 異類연용으로 EDD 원칙에 따라 의무양태 ‘要_[의무]’, 동적양태 ‘要_[바람]’가 각각 연용되었다. 예문(8)은 同類연용으로 인식양태 ‘可能_[가능]’과 ‘要_[필연]’가 함께 사용되었다.

‘可能+應該’는 CCL에서 14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9) 我認爲王國維可能_[가능]應該_[의무]屬於鴛鴦這一類。
 나는 왕국위는 아마도 원앙류에 속할 것이라 생각한다.

예문(9)는 異類연용으로 인식양태 ‘可能’ 뒤에 인식양태 ‘應該’는 함께 올 수 없다.¹³⁾ 따라서 의미적으로 인식양태 ‘可能_[가능]’과 의무양태 ‘應該_[의무]’가

13) 吳藝莉(2018:43)는 ‘一定’, ‘應該’, ‘可能’은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확신도가 강/중/약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연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可能’과 ‘應該’는 동일한 인식양태 조동사로 명제에 대한 확신도가 다를 뿐 시각(維向)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同類연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함께 출현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可能+ 可以’는 CCL에서 30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0)a. 對於佛教的事情，我是不懂，不過他**可能**_[가능]**可以**_[능력]幫忙。
불교와 관련된 일에 대해 나는 잘 모르지만, 그는 아마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b. 我可不曾阻止你，羅賓壓低聲音說：“如果我們一起生氣，**可能**_[가능]**可以**_[능력]改變些什麼。”
나는 너를 막을 수 없어, 로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우리가 같이 화를 내면 아마도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을 것이야.”

예문(10a-b)는 모두 異類연용이다. 인식양태 ‘可能_[가능]’ 뒤에는 의무양태 ‘可以_[능력]’ 또는 동적양태 ‘可以_[능력]’가 올 수 있다. 그러나 CCL 코퍼스 검색결과 의무양태 ‘可以_[능력]’와 결합하는 예문은 발견할 수 없었다.

‘可能+ 想’은 CCL에서 33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1) 您**可能**_[가능]**想**_[바람]知道他的近況?
당신은 아마 그의 근황이 알고 싶으시겠지요?

예문(11) 역시 異類연용으로 ‘可能_[가능]’ 뒤에 동적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 ‘想_[바람]’이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동적양태 조동사에만 속하는 ‘想’, ‘敢’, ‘肯’이 연용하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동적양태 조동사 ‘想_[바람]’은 기원이나 바람을 나타낸다. ‘想’ 뒤에 오는 조동사에 따라 연용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음 예문을 보자.

- (12)a. 這種考題難度比較大，能夠讓所有**想**_[바람]**要**_[바람]擔任這個人非
常明確怎樣做好將來可能要擔任的工作。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지 명

확히 할 수 있다.

- b. 我們很想_[바람]能_[능력]找到一些鄧世昌的遺蹤。
우리는 등세창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매우 바란다.

예문(12a-b)는 모두 동적양태 조동사 ‘想’, ‘要’, ‘會’, ‘能’이 연용하는 同類 연용이다. ‘想+要’는 CCL에서 365회, ‘想+能’은 136회 출현하였다. 예문(12a)에서 ‘想’ 뒤에 오는 ‘要’는 인식양태 ‘要_[필연]’, 의무양태 ‘要_[의무]’, 동적양태 ‘要_[바람]’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 다만, EDD 원칙에 따라 동적양태 ‘想’은 동적양태 내에서만 연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행하는 조동사 ‘要’ 역시 [바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유추할 수 있다.¹⁴⁾ 예문(12b)의 조동사 ‘能’ 역시 인식양태 ‘能_[가능]’, 의무양태 ‘能_[허락]’, 동적양태 ‘能_[능력]’ 세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지만, ‘想’ 뒤에는 동적양태 能_[능력]만 올 수 있다.

조동사 ‘敢_[용기]’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나타낸다. 다만, ‘敢’과 연용하는 조동사는 단 2회로 매우 제한적이었다¹⁵⁾. 다음 예문을 보자.

- (13)a. 三千大千世界須與吹卻不難，況此小樹纖毫，敢_[용기]能_[능력]當我風道！
삼천 대천 세계에 잠시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하물며 이 작은 나무가 어찌 감히 나의 바람 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b. “李尋歡若不肯吃，五師弟豈非也要陪著他挨餓，他身子一向單薄，近年來更是一直纏綿病榻，我們敢_[용기]能_[능력]讓他再受苦難折磨？”

14) CCL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찾을 수 있었다.

- (1) 我想可能走是往這個方向走去。
(2) 我想應該寫一篇為《三家村》平反的文章。

하지만 위 예문은 조동사 연용으로 볼 수 없다. EDD 원칙에 따라 동적양태 조동사 ‘想’과 인식양태 조동사 ‘可能’ 및 인식양태/의무양태 조동사 ‘應該’는 연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想’은 모두 ‘생각하다’의 동사이다.

15) 본고에서는 부정형은 모두 배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敢’은 ‘不敢’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연용하는 예문을 찾기 더욱 어려웠다. 다음 예문과 같다.

- (1) 一位河北口音的小夥子說，他和幾個同鄉今年開春才來北京，人生地不熟，找活不容易，所以工錢不[敢要]高了。
(2) 著名詩人雁翼說：“苦難對於作家來說，是不幸也是有幸，問題在於敢不[敢能]不能把苦難變成財富。

이심환이 먹으려 하지 않으면 오사제 역시 그와 함께 굶주리려 하지 않겠는가. 그는 줄곧 몸이 약했고, 더욱이 최근 몇 년은 계속 시름시름 앓아왔는데, 감히 우리가 그를 다시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겠는가?

예문(13a-b)는 모두 同類연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적양태 ‘敢_[용기]’ 뒤에는 역시 동적양태 조동사인 ‘能_[능력]’이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적양태 조동사 ‘肯_[바람]’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기원이나 바람을 나타낸다. ‘肯’과 연용하는 조동사 역시 ‘能’으로 1회 출현하였다.

- (14) 你可能不是技術專家，你也可能不是銷售能手，規劃市場你肯_[바람]能_[능력]更不善長，但你必須成爲公司業務的專家。
너는 기술자도 아니고 세일즈 베테랑도 아니니, 마케팅 기획은 더욱이나 잘 할 수 없겠지만, 회사 업무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예문(14)는 동적양태에 속하는 ‘肯_[바람]’과 ‘能_[능력]’이 함께 연용되고 있다.

종합하면, 인식양태 조동사 ‘可能’은 EDD 원칙에 따라 의무양태, 동적양태 조동사와 함께 연용하는 異類연용과, 인식양태 조동사끼리 결합하는 同類연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可能’이 ‘會’, ‘要’와 연용하는 빈도수가 각각 498회, 421회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적양태 조동사 중 단일 의미를 나타내는 ‘想’, ‘敢’, ‘肯’은 EDD 원칙에 따라 인식양태, 의무양태와는 결합하지 못하고, 동적양태 조동사 내에서만 연용이 가능한 同類연용만 나타났으며, 그 출현 빈도수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想+要’가 365회, ‘想+能’이 136회로 ‘敢’, ‘能’이 연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得+X’, ‘應該+X’, ‘會+X’, ‘可以+X’

본 절에서는 두 개의 복합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得’, ‘會’, ‘應該’, ‘可以’

가 연용하는 분포적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得’는 인식양태 ‘得_[필연]’와 의무양태 ‘得_[필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 의미 양태 조동사이다. CCL 코퍼스에서 ‘得+會’는 48회, ‘得+要’는 87회, ‘得+應該’는 3회, ‘得+能’은 40회, ‘得+肯’은 1회, ‘得+敢’는 6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5) 問的時候你_[필요]會_[능력]問。
질문할 때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 (16)a. 英國教育界人士認為，要滿足一個學生的基本生活需要，在目前的助學金的水準上，每月還得_[필연]要_[필연]增加200英鎊左右。
영국 교육계 인사들은 한 학생의 기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현재 장학금 수준에서 매달 200파운드 정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b. 我_[필요]要_[의무]完成那個合約。
나는 이 계약을 완료해야만 한다.
- (17) 而且，你還得_[필요]應該_[의무]有敏捷的應變力，應變能力。
그리고 너는 민첩한 대응력과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 (18)a. 當時我挺緊張，但不能表露出來，比賽就_[필연]能_[가능]承受這個壓力。
경기를 하려면 이런 스트레스는 견딜 수 있어야 하니, 그때 나는 긴장한 상태였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 b. 願姑姑沒死，讓我_[필요]能_[의무]再見她一面。
고모가 죽지 않아서 그녀를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c. 能讓同行們服氣，不光得_[필요]能_[능력]說，自己也得能練。
동종업계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말을 잘 해야할 뿐 아니라 스스로 연습도 해야 한다.
- (19) 在艱難困苦面前，在為群眾謀福利面前，黨員、幹部就_[필요]肯_[의무]帶頭吃虧。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대중의 복지를 모색하기 전에 당원, 간부가 앞장서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 (20) 敢打、敢拼，還得_[필요]敢_[능력]贏！
필사적으로 싸우고 분투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예문(15)의 ‘得+會’는 의미적으로 ‘질문을 해야하는’ 어떤 미래의 시간에

행위자가 도의적/의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무양태 조동사 ‘得’와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동적양태 조동사 ‘會’가 결합한 異類연용이다. 예문(16a-b)는 ‘得’와 ‘要’가 연용된 경우이다. 예문(16a)가 인식양태 ‘得_[필연]’와 ‘要_[필연]’가 연용되어 정황의 출현 가능성인 ‘매월 200과운드가 증가할 것’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반드시 그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면, 예문(16b)는 의무양태 ‘得_[필요]’와 ‘要_[의무]’가 함께 출현하는 同類연용으로 주어 ‘我’가 ‘계약을 완성해야’한다는 도의적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17)은 ‘得+應該’로 코퍼스에서 3회 출현하였는데 모두 의무양태 ‘得_[필요]’와 ‘應該_[의무]’가 결합한 同類연용이다. 예문(18a-c)는 ‘得’와 ‘能’의 연용이다. 예문(18a)는 인식양태 ‘得_[필연]’와 ‘能_[가능]’이 함께 출현하는 同類연용이고, 예문(18b)는 의무양태 ‘得_[필요]’와 ‘能_[허락]’이 함께 출현하는 同類연용이다. 반면, 예문(18c)는 의무양태 ‘得_[필요]’와 동적양태 ‘能_[능력]’이 함께 출현하는 異類연용이다. 예문(19), (20)은 ‘得’와 ‘肯’, ‘敢’이 함께 출현하고 있는데 모두 의무양태와 동적양태가 결합한 異類연용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應該’ 역시 인식양태 ‘應該_[개연]’와 의무양태 ‘應該_[의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 의미 양태 조동사이다. CCL 코퍼스에서 ‘應該+會’는 416회, ‘應該+要’는 400회, ‘應該+能’는 288회, ‘應該+可以’는 443회 출현했으며, ‘應該+可能’는 4회 출현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1)a. 學校應該_[개연]會_[개연]有很大的閱覽室吧?
학교에 당연히 큰 열람실이 있겠지?
b. 你應該_[의무]會_[능력]騎馬吧?
너는 당연히 말을 탈 수 있겠지?
- (22) 而身爲企業的哈佛經理, 應該_[의무]要_[의무]了解這些狀況。
기업의 하버드 관리자로서 이 상황을 마땅히 이해해야 한다.
- (23) 我們拆了四間鑄造廠移到這裏來, 二個月之內應該_[개연]可以_[능력]開工。
우리는 주조 공장 네 곳을 철거해서 이곳으로 옮겼으니, 두 달 안에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24) 並且把提出來的任何論證都化爲三段論的形式, 這樣就應該_[개연]可能_[개연]避免一切的謬誤了。

또한 제기한 어떤 논증도 3단논법의 형식으로 바꾸면 모든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문(21a)는 인식양태 ‘應該_[개인]’와 ‘會_[개인]’가 同類연용하여 ‘학교에는 마땅히 큰 열람실이 있을 것’이라는 명제의 진리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예문(21b)는 의무양태 ‘應該_[의무]’와 동적양태 ‘會_[능력]’가 異類연용하고 있다. ‘應該+會’의 출현 빈도수 416회 중, 異類연용의 빈도수는 매우 극소수이고 同類연용의 빈도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예문(22)는 의무양태 ‘應該_[의무]’와 ‘要_[의무]’가 함께 출현하는 同類연용이다. 예문(23)은 인식양태 ‘應該_[개인]’와 동적양태 ‘可以_[능력]’가 함께 출현하는 異類연용이다. 예문(24)의 ‘應該+可能’은 총 4회 출현하였다. ‘可能’이 인식양태만을 나타내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인식양태 ‘應該_[개인]’만 올 수 있다.

다음으로 ‘會’는 인식양태 ‘會_[개인]’와 동적양태 ‘會_[능력]’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 의미 양태 조동사이다. CCL 코퍼스에서 ‘會+要’는 7회, ‘會+想’는 3회, ‘會+可能’는 6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5)a. 總有一天湖南會_[개인]要_[필연]變成廣東的‘殖民地’!
언젠가 호남성이 광동성의 식민지가 될 수 있겠지!
- b. 我們還會_[개인]要_[의무]繼續唱“詠歎調”嗎?
우리 계속 ‘영탄조’를 부를 수 있겠지?
- (26) 後來我就想, 這種新聞的確是有市場, 人們本能地會好奇、會_[개인]想_[바람]看下去。
나중에 생각해 보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궁금해하며 보고 싶어하니 이런 뉴스는 확실히 시장성이 있다.
- (27) “不只是幫助, 只要能在這個莉麗身上打開缺口, 這個案子就會_[개인]可能_[가능]有重大突破。”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릴리에게서 방도를 모색할 수 있다면 이 소송은 중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문(25a)는 인식양태 ‘會_[개인]’와 ‘要_[필연]’가 함께 하는 同類연용으로 ‘호남성이 언젠가는 광동성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예문(25b)는 인식양태 ‘會_[개인]’와 동적양태 ‘要_[바람]’가 함께 출현하는 異類연용이다. 예문(26)은 인식양태 ‘會_[개인]’가 동적양태 ‘想_[바람]’과 함께 출현하는 異類연용으로 단 3회 출현하였다. 예문(27)에서는 ‘可能’이 인식양태이기 때문에 앞에 오는 ‘會’ 역시 EDD 원칙에 따라 인식양태를 나타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可以’는 의무양태 ‘可以_[허락]’와 동적양태 ‘可以_[능력]’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 의미 양태 조동사이다. CCL 코퍼스에서 ‘可以+要’는 12회, ‘可以+會’와 ‘可以+能’이 각각 6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8)a. 爲什麼不把我的銀子交給銀行，等我來的時候，連本帶利都可以_[허락]要_[바람]回來呢。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하지 않았나.
- b. 蔣太太想一想：“你可以_[능력]要_[바람]搬出去住？”
 장여사는 “네가 나가서 살 수 있다고?”라고 생각을 해봤다.
- (29)a. 再說，這出家或出世的觀念的老家，是印度不是中國，是跟著佛教來的；印度可以_[허락]會_[능력]發生這類思想，學者們自有種種哲理上乃至物理上的解釋、也盡有趣味的。
 다시 말해, 출가나 출세라는 관념의 고향은 중국이 아닌 인도로, 이는 불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이런 사상이 생겨날 수 있고, 학자들은 그 나름의 철학적, 물리적 해석을 하는데, 매우 흥미롭다.
- b. 他建議香港考古學界應該將香港的文物與內地以至全世界的文物作對比這樣可以_[능력]會_[능력]有更多的發現。
 그는 홍콩 고고학계에서 홍콩의 문물을 대륙 및 전 세계의 문물과 비교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발견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30) 好的，張老師剛才您提到我們設的分數級差，您可以_[허락]能_[능력]介紹一下這個都是怎麼設置的嗎？
 네, 장선생님이 방금 점수 차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문(28a-b)는 모두 同類연용이다. 예문(28a)는 의무양태 ‘可以_[허락]’, ‘要_{[의}

무)가 연용되고 있고, 예문(28b)는 동적양태 ‘可以_[능력]’, ‘要_[바람]’가 연용되고 있다. 예문(29)에서 먼저 예문(29a)는 의무양태 ‘可以_[허락]’와 동적양태 ‘會_[능력]’가 함께 출현하는 異類연용이고, 예문(29b)는 동적양태 ‘可以_[능력]’와 동적양태 ‘會_[능력]’가 함께 출현하는 同類연용이다. 예문(30)은 의무양태 ‘可以_[허락]’와 동적양태 ‘能_[능력]’이 결합한 異類연용이다.

종합하면 두 가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得’, ‘應該’, ‘會’, ‘可以’의 연용 현상은 단일 의미 양태 조동사처럼 연용 규칙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분포적 특징을 살펴보면 ‘應該’가 ‘會’, ‘要’, ‘可以’, ‘能’과 연용되는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得’가 ‘會’, ‘要’, ‘能’과 결합하는 빈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會’, ‘可以’가 다른 조동사와 연용하는 경우는 10회 이내로 매우 적었다.

3) ‘要+X’, ‘能+X’

‘要’는 인식양태 ‘要_[필연]’와 의무양태 ‘要_[의무]’, 동적양태 ‘要_[바람]’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복합 의미 양태 조동사이다. CCL 코퍼스에서 ‘要+會’는 43회, ‘要+應該’는 5회, ‘要+能’은 174회, ‘要+可以’는 6회, ‘要+想’은 418회, ‘要+肯’은 24회, ‘要+敢’은 139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1) 這就要求大學生既要_[의무]會_[능력]自學, 又要會聽課, 抓住教授講課的重點。
이는 대학생들이 독학도 할 수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게 해서 교수 강의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32) 觀念重塑固然重要, 也要_[의무]應該_[의무]充分發揮他們本身的優點。
관념의 재구성도 중요하지만, 그들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33) 衛星上天後, 要_[필연]能_[가능]看得見, 聽得著, 抓得住。
위성이 하늘에 오르면 보고, 듣고, 잡을 수 있게 된다.
- (34) 這種書不要與競賽掛鉤, 也不與任何考試掛鉤, 但要_[의무]能_[능력]吸引孩子們去讀。

이런 책은 경쟁이나 어떠한 시험과도 연결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들이 독서하도록 끌어들이 수 있어야 한다.

- (35) 如果不能徹底殲滅世上的邪惡（他們仍在企圖達到這種境界），至少
 要^[의무]可以^[능력]控制整個情況。
 세상의 악을 완전히 섬멸하지 못한다면(그들은 여전히 이러한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 최소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36) 我^[바람]要^[바람]想^[바람]減肥, 我也一定可以成功。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 (37) 他^[바람]要^[바람]肯^[바람]放你, 我就要。
 그가 너를 기꺼이 놓아주려고 한다면 나도 원한다.
- (38) 你^[바람]要^[바람]敢^[용기]跑, 我就再把你的腿打斷了!
 네가 감히 도망가려고 하면 내가 너의 다리를 다시 부러뜨리겠어!

예문(31)은 의무양태 ‘要^[의무]’, 동적양태 ‘會^[능력]’가 함께 출현한 異類연용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32)는 의무양태 ‘要^[의무]’, ‘應該^[의무]’가 결합한 同類연용으로 ‘그들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즉, 사건의 행위자가 도의적으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33)은 인식양태 ‘要^[필연]’, ‘能^[가능]’이 함께 출현하는 同類연용으로 ‘위성이 하늘에 올라가면 보고, 듣고, 잡을 수 있다’는 상황의 출현 가능성을 나타낸다. 예문(34)는 의무양태 ‘要^[의무]’와 동적양태 ‘能^[능력]’이 함께 출현한 異類연용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도록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35) 역시 의무양태 ‘要^[의무]’와 동적양태 ‘可以^[능력]’가 함께 출현한 異類연용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36), (37), (38)은 동적양태 ‘要^[바람]’와 ‘想^[바람]’, ‘肯^[바람]’, ‘敢^[용기]’이 함께 출현하는 同類연용이다.

‘能’ 역시 인식양태 ‘能^[가능]’, 의무양태 ‘能^[허락]’ 및 동적양태 ‘能^[능력]’의 세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복합 의미 양태 조동사이다. CCL 코퍼스에서 ‘能+會’는 1회, ‘能+要’는 5회, ‘能+可以’는 13회, ‘能+想’은 8회, ‘能+敢’은 22회 출현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9) 只有記住字形、記住字義在頭腦中留下字的聲音形象經過科學的訓練才能_[가능]會_[능력]寫。
 글자의 형태와 의미를 기억하여 머릿속에 남은 글자의 음과 형상에 대해 과학적인 훈련을 거쳤을 때야 비로소 글자를 쓸 수 있다.
- (40) 所以, 只要採用適當的環境政策和持續農業發展政策, 貿易、環境和農業持續發展就能_[가능]要_[필연]互兼顧, 但這可能需要多邊支助才會奏效。
 따라서, 적절한 환경 정책과 농업 발전 정책을 채택한다면, 무역, 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방면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41) 哪能_[허락]可以_[능력]隨便抽我咯血呢? 血又不是水! 不可以。
 어디 내 피를 마음대로 뽑아갈 수 있겠어? 피가 물도 아닌데! 안돼.
- (42) 李全能_[능력]想_[마련]創出名牌飲料的想法並非一時的心血來潮。
 이권이 브랜드 음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일시적인 열기가 아니다.
- (43) 只有敢想, 才能_[능력]敢_[용기]創。
 대담하게 생각해야 대담하게 시작할 수 있다.

예문(39)은 인식양태 ‘能_[가능]’, 동적양태 ‘會_[능력]’가 결합한 異類연용으로 ‘과학적 훈련’을 통해 ‘글자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예문(40)은 인식양태 ‘能_[가능]’, ‘要_[필연]’가 함께 출현한 同類연용으로 선행하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상황이 출현할 수 있다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예문(41)은 의무양태 ‘能_[허락]’과 동적양태 ‘可以_[능력]’가 함께 출현한 異類연용이다. 예문(42), (43)은 모두 同類연용으로 동적양태 ‘能_[능력]’과 ‘想_[마련]’, ‘敢_[용기]’이 함께 출현하여 ‘어떠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행위자가 사건을 실현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낸다.

4. 현대중국어 양태 조동사의 연용 양상

지금까지 살펴본 각 양태 조동사의 분포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양태 조동사의 연용 분포

	應該+X	可能+X	要+X	想+X	得+X	能+X	可以+X	會+X	敢+X	肯+X	소계	비율
X+應該		可能+應該 14	要+應該 5		得+應該 3						22	1%
X+可能	應該+可能 4						可以+可能 2	會+可能 6			12	0%
X+要	應該+要 400	可能+要 421		想+要 365	得+要 87	能+要 5	可以+要 12	會+要 7			1,297	31%
X+想		可能+想 33	要+想 418			能+想 4		會+想 3			458	11%
X+得		可能+得 20									20	0%
X+能	應該+能 288		要+能 174	想+能 136	得+能 40		可以+能 6		敢+能 2	肯+能 1	647	16%
X+可以	應該+可以 443	可能+可以 30	要+可以 6			能+可以 13					492	12%
X+會	應該+會 416	可能+會 498	要+會 43		得+會 48	能+會 1	可以+會 6				1,012	24%
X+敢			要+敢 139		得+敢 6	能+敢 22					167	4%
X+肯			要+肯 24		得+肯 1						25	1%
소계	1,551	1,016	809	501	185	45	26	16	2	1	4,152	100%
비율	37%	24%	19%	12%	4%	1%	1%	0%	0%	0%	100%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연용되는 조동사 중 첫 번째 조동사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應該’(1,551개, 37%), ‘可能’(1,016개, 24%)이었으며, 두 번째 조동사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要’(1,297개, 31%), ‘會’(1,012개, 24%)였다. 이에 비해 ‘能’, ‘可以’, ‘會’, ‘敢’, ‘肯’이 연용되는 첫 번째 조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應該’, ‘可能’, ‘得’, ‘肯’이 두 번째 조동사로 출현하는 경우도 매우 적었다.

둘째, 10개의 조동사 중 가장 많은 연용에 사용된 것은 ‘要’로, 앞과 뒤에서 총 2,106번 사용되었다. ‘要’는 인식, 의무, 동적 양태 등 3가지 양태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 하지만 조동사가 단일 의미를 나타내는지 혹은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지와 그 사용 분포가 절대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3가지 양태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또 다른 조동사 ‘能’은 총 692번 출현에 그친 반면, 인식양태만을 나타내는 ‘可能’은 1,028번, 의무양태와 동적양태 등 2개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可以’는 518번 사용되는 등 조동사의 다의성이 반드시

고빈도 활용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셋째, 연용되는 두 조동사의 앞뒤 배열 순서에는 뚜렷한 비대칭이 확인되었는데, ‘可能會’가 498개로 가장 많이 나타난 연용 형태였다면, ‘會可能’은 단 6개의 예문에서만 사용되는 등 이들의 배열에는 분명한 선후 순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흥미롭게도 앞뒤 배열이 유사한 비중으로 많이 사용된 경우가 있었는데, ‘要想(418개)’과 ‘想要(365개)’이다. 이들은 모두 ‘바람’을 나타내는 동적양태 조동사로, 이는 동적양태의 연용에서는 [능력]이 앞선다는 彭利貞(2007) 및 송영규(2007)의 규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같은 시각을 나타내는 조동사는 연용할 수 없다는 吳蕓莉(2018)의 주장이 최소한 동적양태의 연용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는 주관성의 차원에서도 설명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조동사를 양태의 각도에서 삼분류 하고 각각의 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연용되어 사용되는 분포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양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식양태, 의무양태, 동적양태를 나타내는 10개의 대표적인 조동사를 선택하고 CCL 코퍼스에서 실제 연용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연용되는 조동사 결합의 대략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同類연용 및 異類연용의 관점에서 연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조합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직관에 의지해 연용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기존의 연구에 비해, 대량의 예문 분석을 통한 실증적 수치와 그 분포 양상을 바탕으로 조동사의 실제 연용 가능 여부를 명쾌히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수치는 향후 교학적 측면에서도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비대칭적 분포가 나타나는 배열 규칙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조사를 진행한 10개 조동사 각각의 분포 위치 및 연용 가능성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개별 조동사 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조동사 쌍에 대한 별도의 논의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고의 연구 범위는 두 개의 조동사가 연용되는 것에 국한되었기에 세 개 이상의 조동사가 연용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 역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개의 조동사가 연용될 경우 비문이 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양태 조동사가 추가되면서 문법성을 확보하는 경우 등과 같은 여러 현상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조동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초석 단계였으며, 이러한 제(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參考文獻

- 강선주, 「양상으로 본 중국어 조동사의 내부적 차이」, 『中國語文學論集』 第56輯, 2009.
- 박성하, 「현대중국어에서 ‘가능성(possibility)’을 나타내는 양태조동사의 오류분석 및 교학」, 『中國言語研究』 第70輯, 2017.
- 박재승, 「현대중국어 동적양태 범주 설정과 상관 문제에 관한 연구」, 『中語中文學』 第57輯, 2014.
- 송영규, 「전형적 정태동사 연용식의 부정양상 연구」, 『中國學論叢』 第24輯, 2007.
- 최재영, 「중국어 조동사 연구 (1) -현대중국어 조동사의 특징, 범위, 하위분류」, 『中國研究』 第43卷, 2008.
- 최재영, 김동은, 「중국어 동적양상 조동사의 분류기준 고찰」, 『中國學報』 第76輯, 2016.
- Guo, Jiangsheng, Social interaction, meaning, and grammatical form: children's development and use of modal auxiliaries in Mandarin Chinese. Berkely: Uni. of California at Berkely, 1994.
- Joan Bybee, Revere Perkins, William Pagliuca, 1994, 박선자·김문기 역(2010), 『문법의 진화(The Evolution of Grammar)』, 서울: 소통, 2010.
- John Lyons, 1977, 강범모 역, 『의미론 1(Semantics 1)』, 서울: 한국문화사, 2011.
- John Lyons, 1977, 강범모 역, 『의미론 2(Semantics 2)』, 서울: 한국문화사, 2013.
- 崔靖靖·李百濶, 「論現代漢語中多個情態動詞連用的句法結構」, 『山東教育學院學報』 第3期, 2008.
- 劉月華等,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83.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出版社, 1980[2005].
- 馬慶株, 「能願動詞的連用」, 『語言研究』 第1期, 18-28, 1988.

- 彭利貞, 『現代漢語情態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 『現代漢語情態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王國華, 『自X類情狀副詞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 王欣, 『現代漢語情態動詞連用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8.
- 吳蕓莉, 「現代漢語認識情態動詞的連用」, 『漢語學習』第1期, 2018.
- 趙元任著, 呂叔湘譯, 『漢語口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1979.
- 張建榮, 「情態動詞連用主觀化探析」, 『長春工程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3期, 2013.

Abstract

A study on co-occurrence of modal auxiliary verbs in Mandarin Chinese

Moon, You Mi · Oh, You Jeong

This article classified the auxiliary verbs from the angle of the modality and analyzed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occurrence. Based on the existing discussion of modalities, this article selected 10 representative auxiliary verbs indicating epistemic modality, deontic modality, and dynamic modality, and analyzed how they are actually co-occurred in terms of corpus. In doing this, an approximate distribution of the actually co-occurred auxiliary verb combinations could be identifi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ultimately lies in the fact that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relying on intuition to discuss the same issue, it could definitely present the actual possibility of co-occurrence of auxiliary verbs by demonstrating empirical figures and their distribution patterns through a large-scale illustrative analysis. These figures are expected to be also useful in the future regarding pedagogy.

Key words : Auxiliary Verbs, Corpus, Epistemic modality, Deontic modality, Dynamic modality, Co-occurrence

투 고 일 : 2021. 1. 10. / 심 사 일 : 2021. 1. 15.~ 2021. 2. 15. / 게재확정일 : 2021. 2. 20.

